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지난달, 사서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특이점이온걸바속속 #휘귀친구마라탕 #아무진세미집순이 #디카페인유자차가 추천합니다.

글. 고양시도서관센터

#1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백은선 | 문학동네

방향하는 나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아이러니한 서명을 발견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까. 책을 많이 만지는 사서로 일하면서도 종종 동네 서점에 가서 출석체크하듯 책 한 권씩 구매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이번 달 출석체크는 백은선 시인의 에세이집으로 했다. 마음이 방향 중일 때 함께 방향해주는 책 메이트로 꽤 괜찮은 선택일 것이다. #특이점이온걸바속속

책속한줄

“파편이 내 삶의 숙명 같아요. 엄마로 시인으로 작가로 가사 노동자로 선생으로 살면서 매일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숙명이라면 파편의 대마왕이 되고 말 거야.”

#2

뮤직숍



레이철 조이스 | 밝은세상

봄향기가 날 것 같은 책들만 찾아보게 되는 요즘이다. <뮤직숍>은 표지부터 내용까지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책 속에 나오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봄의 따뜻함은 두 배로 나에게 다가온다. 봄의 막바지에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봄을 느껴봤으면 한다. #휘귀친구마라탕

책속한줄

그럴 때마다 음반을 손에 든 프랭크가 부스스한 갈색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다. “이 음반을 들어보세요. 아마 느낌이 팍 올 거예요.” 거기에 음반 가게에 있었다.

#3

어쩌다 커피생활자



나카가와 와나·나카가와 료코 | 북핀

국민 1인당 연간 353잔을 소비한다는 커피. 평균을 열심히 높이고 있는 사람들은 커피를 대하는 자신만의 자세가 있다. 집과 직장 근처 카페 종류와 개수가 곧 인생의 즐거움인 나는, ‘출퇴근 후에, 식사 후에, 운동 후에는 마셔야지!’ 하고 각종 이유를 붙여대며 커피와 함께한다. 좋아하는 것을 (쉽게) 잘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 책으로 입문해 보시길! #아무진세미집순이

책속한줄

커피를 시작하면 자꾸만 ‘특별한’ 도구를 갖고 싶어진다. 조금이라도 커피를 더 잘 내릴 수 있다든가, 나만 유일하게 가진 것이라든가,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에 불을 댕기는 매개가 된다면 도구를 고를 때 더욱 신중해진다.

#4

오늘도 책을 권합니다
북큐레이터가 들려주는
책방 이야기



노희정 | 소동

동네의 사랑방이 되기까지의 소중한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기술적인 북큐레이션 방법은 없었지만, 책과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북큐레이션을 시도하게 하는 원동력은 분명하게 느껴진다. 사람들의 소소한 관심이 오늘도 자리를 지키게 하는 힘이 된다. #디카페인유자차

책속한줄

우리나라에서는 학급문고에 책 한 권씩 내라고 하면 버릴 것 같은 책을 교실에 가져가게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1년 동안 그 책들을 읽지도 않고 손상만 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책들이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책 재미에 빠지게 되고 1년 동안 대화의 내용도 질이 달라진다.

도서발굴단이란?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22522629>

